

## 고코쿠지 절 (興国寺)

고코쿠지 절은 일본의 불교 종파 중 하나인 선종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한때는 서일본 최대 규모의 선사였습니다. 이 사찰은 1227년 가마쿠라 막부(1185~1333년)의 제3대 쇼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1192~1219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되었습니다. 고코쿠지 절의 규모는 시대가 지나며 축소되었지만, 절의 부지는 여전히 광대하고 일 년 내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줍니다.

고코쿠지 절은 원래 사이호지 절이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습니다. 건립 당초에는 밀교 진언종에 속해 있었으나 1258년, 선사 신치 가쿠신(心地覺心, 1207~1298년)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종파를 선종인 임제종으로 변경했습니다. 남북조 시대(1336~1392년)에 고무라카미 천황으로부터 '고코쿠지 절'이라는 사호를 받아 사이호지 절에서 고코쿠지 절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혁은 교토를 거점으로 하는 천황으로부터 가마쿠라를 거점으로 하는 무사라는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 정치적 권위가 이양되는 일본 역사상 중요한 과도기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일본 불교가 급속히 다양화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선종은 일본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종파였는데, 가마쿠라 막부의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가쿠신은 당시 일본의 중심이었던 교토 이외에도 신앙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고코쿠지 절을 일본 내 유수의 선사로 발전시켰습니다.

현재, 고코쿠지 절은 주로 본당이라고도 불리는 '법당', 명상을 위한 '선당', 창건자인 가쿠신을 기리는 '개산당' 등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쿠신은 고다이코 천황(재위 1318~1339년)으로부터 호토 엔묘 국사(법등원명 국사, 완전히 깨어난 법등의 국사라는 의미)의 호를 추증받았습니다. 개산당은 가쿠신 선사가 묻힌 땅 위에 건립되어 있으며, 숭배 대상으로 목조법등국사좌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